

+ 우리들의 정성 【1월 16일(월) ~ 1월 22일(주일)】

연중 제 3주일 주일헌금		3,051,5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460명	
교 무 금 5,480,000원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사노라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레리
감 사 헌 금	한보성	베로니카	50,000	박광수	오로	권인규	100,000
성소후원금	방성호	프란치스코	50,000	김민희	울리야나		
제 대 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5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8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5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6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2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2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2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상훈	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자수훈	페나스카오나	유리	타레레
	강인기	한하타오카시나아라라스코	10,000	강인기	나로노셉페나스카오나	강인기	나도나나사셀코나노
제 대 꽃	한보성	프란치스코	10,000	박광수	오로	엄명성	요안나
토지·건축 헌금	한보성	프란치스코	5,000,000	3지역공동체	125,000	이현기	마티아

본당 부채 현황(교구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00,000,000원	5,175,000원	10,990,000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 I 미사전례》)

◆ 미사 때 신자들은 신부님처럼 성혈과 성체를 함께 모실 수 있나요?

○ 미사 때 신자들이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양형 영성체는 사제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세례, 견진, 혼인, 서품, 서원, 병자성사, 피정 등의 경우에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0조 참조).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대로 미사 때 성체와 성혈을(양형영성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성혈을 마시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성체 때 신자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고, 둘째는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피를 포함하여 현존하신다는 신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는 예수님의 살만 존재하고 성혈 안에는 예수님의 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에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성혈 안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세부터 성체만 모셔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성혈을 흘릴 위험성을 막으려고 신자들에게는 성체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1415년 독일 콘스탄츠 공의회는 성혈을 신자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는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 신자들도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전례 헌장 55항 참조). 양형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신 뒤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는 방법과 축성된 빵을 성혈에 적셔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미사 경본 충지침』, 286-287항 참조).